

소설에서의 치매 서사의 수용*

김 미 영** (세명대)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4. 엘리스 먼로의 「꿈이 산을 넘어오다」 |
| 2. 치매와 치매 서사 | 5. 나오며 |
| 3.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 | |

국문초록

치매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치매 당사자는 물론 주변 인물들을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슬한 문제들과 직면하게 한다. 치매의 주요 특성인 망각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건 또는 현상들은 그 자체로 중요한 문학 서사를 이룬다. 이 논문은 치매가 소설 작품 안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를 작품 구조의 분석을 통해 짚어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텍스트는 치매를 소재 또는 모티브로 삼아 각기 다른 서사를 펼치고 있는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와 엘리스 먼로의 「꿈이 산을 넘어오다」 두 편으로, 두 작품을 분석, 고찰하는 연구는 타자담론 비평의 영역을 넓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소설들은 ‘기억’과 ‘기억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숙고할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또는 보호자들의 예측 불허 상황에서의 자아 정립, 치매 환자의 인격에 대한 보편적인 주제를 고민할 기회, 그리고 삶의 행복과 영속성에 대해 숙고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16년 세명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세명대학교 조교수

주제어 : 엘리스 먼로, 박완서, 문학적 수용, 치매, 기억과 망각

1. 들어가며

이야기, 즉 스토리텔링이 중심인 소설은 최근에 들어서 사회와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그 내용이나 형식이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하고, 이전에는 주변부에 속하던 소재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역사, 사회, 문화 등에서 주로 거시담론에 관심을 보이던 문학들이 노인들의 성, 자살, 치매 등 노인 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는 이유이다. 그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인 치매는 치매 당사자는 물론 주변 인물들을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술한 문제들과 직면하게 만든다. 치매의 주요 특성인 망각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건 또는 현상들은 그 자체로 인간 삶의 큰 문제임으로 중요한 문학 서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작품들의 고찰은 발표 당시의 사회나 가치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치매가 소설 작품 안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를 작품 구조의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치매를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성 안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치매가, 언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임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을 위해 선택된 텍스트는, 치매를 개인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작품과 사회적 관계성 안에서의 문제로 파악하는 작품으로, 1995년에 발표된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와 캐나다 작가 Alice Munro¹⁾의 1999년에 발표된 「꿈이 산을 넘어오

1) 엘리스 먼로(1931~) : 캐나다 작가로 2009년 맨부커상을, 201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다 The Bear Came Over the Mountain」이다. 박완서와 먼로는 흥미롭게도 같은 해인 1931년에 태어났는데, 동시대의 작가가 같은 소재를 다른 공간에서 서술한다는 점에서 문화적인 특성과 차이의 대략적인 고찰도 가능할 것이다.

「환각의 나비」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갈등을 겪으면서도 치매 노인이 가족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믿고, 같이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일반적인 한국의 정서에 ‘치매 환자가 원하는 삶 또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편 「꿈이 산을 넘어 오다」는 서구적인 사고가 반영되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치매 환자가 자신의 거취, 자신의 사랑,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선택하고, 또한 보호자는 그것을 존중하고 이루어 주려는 노력을 하는 등 치매 환자의 주체적 결정, 인격의 존중, 삶의 행복 등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 작품을 분석, 고찰하는 연구는 다자담론 비평의 영역을 넓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완서와 먼로는 극명하게 다른 시선으로 치매와 치매 환자를 바라본다. 박완서의 작품에서는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는 것이 치매 당사자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보호자의 역할이 강조된 반면, 먼로의 인물은 스스로 요양원으로 떠나고 그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보호자는 치매 당사자의 결정을 수용한다. 또한 동시대 여성이 쓴, 그러나 공간대가 다른 작품을 조명해 봄으로써 문화 비교를 통한 문학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미리 언급하자면, 박완서가 치매를 가족의 정서와 심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한국의 보편적인 정서인 가족 중심의 문제를 들추고 있다면, 먼로는 치매라는 질병을 서구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치매 환자와 그 주변의 사회적인 문제, 즉 치매 환자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시선을 확대하고 있다.

2. 치매와 치매 서사

치매는 뇌기능의 기질성 손상 결과 지적 능력이 감퇴하거나 소실하여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치매의 주된 특징은 기억소실, 추상적 사고장애, 판단력 장애, 인지결손, 충동조절상실 성격 변화 등인데,²⁾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 질환 중의 하나는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이라고 한다. 데이비드 쟁크는 “알츠하이머병이란 무엇인가?”라는 부제가 붙은 자신의 책 『망각 The Forgetting』의 첫머리에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King Lear』에 나오는 대사 하나를 배치해 놓고 있다.

리어 : 여기 누구 날 아는 사람 없는가? 난 리어가 아니네.
리어가 이렇게 걷는가? 이렇게 말하고? 그의 두 눈은 어디 있지?
그의 의지는 약해지고 분별력도 흐려져 버렸지.
하! 깨어 있다고? 천만에.
도대체 내가 누군지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는가?
바보 : 리어의 그림자³⁾

리어의 이 유명한 대사는 최고 권력자였더라도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 의지는 삭고, 삶은 황폐함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치매 증세의 가장 확실한 특징인 기억소실 즉, 망각은 타자와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관계가 흔들리면서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게 한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경우의 1기에는 증세가 10~50년간이나 지속되고 단기 기억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2기는 2~4년간 지속되며 무감정, 공포, 사회적 위축과 같은 증세가 나타나고, 3기는 2~8년 정도 지속되며 얼굴인식 곤란, 소통의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자신의 경험을 전반

2) R. J. Campbell, *Psychiatric Dictionary*. 5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158-159면 참조.

3) D. 쟁크, 이진수 역, 『망각: 알츠하이머병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3, 6면.

적으로 잘못 인식해 두려움, 불안, 공포 등을 느끼는 4기는 2~4년간 지속된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5기는 2~4년간 지속되는데 거의 모든 운동기능이 이차 운동피질에 이상이 생겨 넘어지면 심하게 골절되거나, 사래가 폐렴으로 발전하고, 배뇨조절 장애가 생긴다.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추산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수가 2050년이 되면 200~250만 명, 65세 이상 인구에서 발병할 가능성은 13% 이상이 될 것⁵⁾이라고 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2010년 기준 510만 명의 환자, 2050년에는 1,320만 명의 환자가 존재할 것⁶⁾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 병의 발병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데다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치매는 점차 사회적 인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문학작품들도 많이 생산되고 있다.

치매를 서사, 즉 이야기의 중심으로 하는 한국 소설은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1995)를 비롯하여 이해경의 「길 위의 집」(1995), 김인숙의 「거울에 관한 이야기」(1998), 김원일의 「나는 누구인가」(2001), 이승우의 「검은 나무」(2002), 박민규의 「낮잠」(2008), 김우남의 「치매일기」(2010) 등 외에도 다양한 서술 방식의 글들이 있고, Nicholas Sparks의 『노트북 The Notebook』(1996), Martin Suter의 『스몰 월드 Small World』(1997), 엘리스 먼로의 「꿈이 산을 넘어오다」, Lisa Genova의 『스틸 앨리스 Still Alice』(2007) 그리고 Emma Healey의 『엘리자베스가 사라졌다 Elizabeth is missing』(2014) 등 많은 외국작품들이 있다. 이런 작품들은, 치매를 하나의 중요한 주제나 소재로 선택해서 치매 환자 자신의 이야기나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 혹은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사건을 다루는, 치매 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W. R. 웬클 & D. 아멘, 신정호 역, 『알츠하이머 치매의 예방과 치료』, 고려의학, 2005, 39-40면 참조.

5) 이강수, 정해관, 오병훈, 홍창형,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인지선별검사 4종의 타당도 비교」, 『신경정신의학』 48(2), 2009, 61-69면 참조.

6) 이동영, 이강욱, 이정희 등, 「Mini-Mental State Examination의 한국 노인 정상 기준 연구」, 『신경정신의학』 41(3), 508-525면 참조.

그렇게 많은 작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 작품 안에서의 치매에 관한 문학 서사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그래도 치매 문학에 꾸준히 관심을 보인 김은정의 연구는 눈여겨 볼 만하다. 김은정은 「모녀 서사를 통해 본 ‘치매’의 상징적 연구」⁷⁾를 통해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의 치매가 궁극적으로 은유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고 있다. 「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의 의미」⁸⁾에서는 치매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고, 치매를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서사적 주제를 망각의 의미, 반성의 의미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으며,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의 의미」⁹⁾에서는 박완서의 노년소설에서 만나는 암, 중풍, 치매 등의 질병들을 병리학적인 의미와 주제 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최명숙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년의식 연구 - 양원식의 노년소설과 대비하여」¹⁰⁾에서 소외와 단절, 현실순응과 능동성, 노년의 사랑 그리고 질병과 죽음의식 등을 다루면서 치매를 언급한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연구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문학 서사적인 측면에서의 치매에 대한 연구는 병리학적인 개념을 문학에 끌어들이는 점에서 문학연구와 창작 등 문학 일반에 유용하고, 특히 ‘망각’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현실 인지’라는 치매의 중요한 특징을 사용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전개할 수 있는 서술이 작가가 노리는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은 다른 작가들의 문학적 상상력을 고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연구는 누구에게나 고유한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7) 김은정, 「모녀 서사를 통해 본 ‘치매’의 상징성 연구」, 『韓國文學論叢』 61, 한국문학회, 2012, 303-327면.

8) 김은정, 「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의 의미」, 『韓民族語文學』 63, 한민족어문학회, 2013, 313-340면.

9) 김은정,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의 의미」, 『韓國文學論叢』 70, 한국문학회, 2015, 293-332면.

10) 최명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년의식 연구 - 양원식의 노년소설과 대비하여」, 『국제한인문학연구』 5, 국제한인문학회, 2008, 219-242면.

3.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

1995년 제1회 한문숙문학상 수상작인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는 한국 현대소설의 노년서사 가운데 중요한 작품으로 꼽힌다. 4장으로 이루어진 병렬식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이 텍스트는 1장과 3장에서 ‘그 집’과 ‘그 집’에 살고 있는, 어려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마금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는 치매 노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4장에서는 이들을 한 자리에 모은다. 치매 노인과 성폭행을 당한 여성을 다루고 있는 이 텍스트에서 눈여겨 볼 점은 가족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두 인물을 화합하게 하는 것이 버거운 삶의 기억을 잊게 하거나, 진정한 가족을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집’이라는 것이다.

3.1.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인 치매 환자

치매 노인과 그의 딸인 영주의 이야기는 2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영주의 집에서 기거하는, 젊어서 과부가 되어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과천에 데려다 달라고 한다. 과천은 영주와 영주의 남동생이 살고 있는 곳의 중간쯤에 있는 장소이다. 영주는 그곳을 동생 곁이라고 생각하고, 동생은 누나네 집이라고 생각한다.

“할머니가 과천을 좋아하신다면 그건 여기보다 외삼촌네에서 훨씬 더 가깝기 때문이니까 그게 그거야.”

영주는 필요 이상 차갑게 잘라 말했다.

“그렇게 외삼촌한테 신경을 쓰실 거면 모셔오긴 뭇하러 모셔오셨어요?”

“애 줄 봐. 너 말하는 투가 할머니를 꼭 남의 식구처럼 여기고 있잖아.”

“어머니 고정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히려 어머니 쪽이에요. 정말 왜 그러세요. 어머니답지 않게.”¹¹⁾

11) 박완서, 「환각의 나비」, 『환각의 나비』, 푸르메, 2006, 232면.

위 인용부분은 치매 환자를 대하는 가족 간의 의존방식을 말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가출한 어머니가 의왕터널 부근에서 발견되자 영주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가 동생 곁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단정한다. 어머니가 자주 발견되는 의왕터널이 전에 살던 과천에서도 지금 사는 둔촌동에서도 아들네에 이르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영주는 자신보다 열세 살이나 어린, 막내이자 유복자인 아들 영탁에게 가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들의 보호 밑에 있고 싶다는 갈망이 예정된 것”¹²⁾이라는 생각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어머니를 동생의 집에 보내게 된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머니는 자신을 과천으로 보내달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영주네 집이든 영탁이네 집이든 엄마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 이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천덕꾸러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어머니가 그들에게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치매를 받아들이는 한국적 정서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이 어머니의 치매를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생각하므로 치매 노인은 보호자들의 결정에 따라 이집 저집으로 옮겨 다니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 언급하게 될 먼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치매를 질병으로 받아들이는 서구의 객관적인 시선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치매를 노화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한 치매 노인의 행동반경은 가족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 다시 아들의 집으로 간 어머니의 치매는 오히려 빠르게 진행된다. 어머니는 자주 집밖으로의 탈출을 시도하지만, 영주의 울케는 집 문을 잠가 놓다가 나중에는 방문을 잠금으로써 어머니의 행동반경을 집 안으로 한정짓는다. 혼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지내던 어머니는 베란다를 향하는 문을 통해 나와 아들 내외의 방을 들여다보거나 거울을 통해 낯선 이의 모습을 보면서 점차 자아를 상실하고 훼손시켜 인격이 파괴되는 길을 재촉한다. 이런 과정에서 영주와 손아래 울케는 팽팽한 입장 차이와 자존심 때문에 서로 각을 세운다.

이런 갈등은 치매 환자로 인해 보호자들이 일상을 영위하기가 힘든 상태

12) 앞의 책.

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로,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감추어져 있던 위선을 드러내는 계기”¹³⁾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영주도 올케도 자신의 일이 있는 사람들로써 언제나 치매 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히 지칠 만하기 때문에, 보호에 지친 “보호자도 보살핌이 필요하다.”¹⁴⁾는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든다. 사실 보호자가 치매 환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¹⁵⁾이다. 그러나 이 텍스트에서처럼 영주나 영주의 올케같이 치매 자체에 대한 이해나 치매 당사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딸 혹은 아들이 모셔야 한다는 의무감만을 가진다면 치매 환자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물론 그런 갈등은 그 자체로 다른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소재로나 가족 서사를 위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환각의 나비」의 또 다른 축은 마금에 관한 이야기로, 작가는 이 이야기를 결국 치매 노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복선으로 깔아놓고 있다. 이 텍스트의 1장은 특이하게도 어떤 집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인가는 3장에 가서야 알 수 있다. 지금은 천개사 포교원이라는 팻말을 건 그곳에는 자연스님이 된 마금이 거처하고 있다. 마금은 열네 살에 그 집의 주인이었던 도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마금의 어머니가 도사에게 길길이 뿔 덕에 대가로 받은 집에서 처녀무당이 되어 번 돈으로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다가 지금은 자연스님이 된 인물이다. 그 사건 이후에 남자혐오증을 얻은 마금의 절집에 어느 날 노파가 한 사람 들어오는데, 그녀와 함께 지내면서 마금은 처음으로 기쁨을 느낀다.

마금의 이야기는 영주와 어머니의 이야기에 비해 그 사건이나 행동이 구체적이지 않고 어딘지 옛날이야기를 하듯이 느슨하게 전개된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도, 그에 대한 대가로 집과 텃밭을 얻었다는 것도, 나중에 무당

13) 김은정,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의 의미」, 앞의 책, 324면.

14) J. K. 코스테. 홍선영 역, 『알츠하이머병 : 가족에게 다가가기』, 부·키, 2014, 215면.

15) 앞의 책, 79면

이 되었다가 스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언젠가 한번 풍문으로 들었을 법한 이야기 정도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마금 자체가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영주의 어머니가 그 집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 어떻게 해먹는 푸성귀인지도 모르고 손에 잡히는 대로 한웅큼 뽑아다가 다듬으려는데 노파가 한 사람 스르르 들어왔다. 한 눈에 짐을 치러 온 사람이 아니었다. 계절에 맞지 않은 옷에 비해 환한 얼굴이 까닭없이 눈부셨다. 노파는 웃으면서 스님을 나무랐다.

“아욱도 다듬을 줄 몰라. 쫓쫓 나이는 어디로 처먹었누.”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마주앉아 아욱을 다듬기 시작했다. 아욱은 연한 줄기의 껍질을 벗겨가며 다듬는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 알았다.¹⁶⁾

영주가 어머니를 찾았을 때 마주하는 마지막 장면과 흡사한 이 장소는 영주의 어머니와 마금의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이면서 동시에 두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영주의 어머니에게 현재의 무거운 기억을 내려놓는 장소라면, 마금에게는 영주의 어머니가 들어옴으로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족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는 공간이 된다.

이 이야기는 4장에서 영주의 눈을 통해 다시 한 지점으로 모아진다. 다시 가출한 어머니의 행방이 묘연해 반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버린 어느 날 영주는 무엇에 이끌리듯 들어간 어느 마을의 ‘천개사 포교원’이라는 곳에서 어머니를 발견한다. 어머니의 행복했던 기억이 담긴 종암동 집과 닮은 절집이었다.

부처님 앞, 연등 아래 널찍한 마루에서 회색 승복을 입은 두 여자가 도란도란 도란거리면서 더덕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더할 나위 없이 화해로운 분위기가 아지랑이처럼 두 여인 둘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몸집에 비해 큰 승복 때문에 그런지 어머니의 조그만 몸은 날개를 접고 쉬고 있는 큰 나비처럼 보였다. 아니아니 혈령한 승복 때문만이 아니었다. 살아온 무게나 잔재를 완전히

16) 박완서, 앞의 책, 250면.

털어버린 그 가벼움, 그 자유로움 때문이었다. 여지껏 누가 어머니를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드린 적이 있었을까. 칠십을 넘긴 노인이 저렇게 삶의 때가 안 낀 천진당어리일 수가 있다니.¹⁷⁾

위의 인용문은 치매 노인이 가족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믿고, 같이 사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던 한국 사회에 ‘치매 당사자가 원하는 삶 또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장면을 통해 영주는 어머니가 원한 것이 자식 곁에서 천덕꾸러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을 깨닫는다. 그녀가 짊어진 짐을 벗어던질 수 있게 하는 기폭제는 치매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현재의 망각’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환상과 같은 일이어서 영주는 눈앞에 있는 어머니를 보고도 선뜻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¹⁸⁾하지만, 그 순간 치매 당사자로서의 어머니의 행위를 이해하게 된다. 어머니는 어느 자식의 보호를 받거나, 폐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도 평화로워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섰던 것이고, 자식들과 행복하게 지냈던 중암동 집과 닮은 그곳에 이르러서 마침내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유로워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억을 잃고 살아가는 삶이 주변인들의 생각처럼 마냥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일 수 있으며, 치매 환자를 자신들의 영역에 묶어두는—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것이 오히려 치매 당사자를 절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3.2. 가족 서사로 바라본 치매

「환각의 나비」는 치매 환자인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가 마음의 이야기와 만나면서 모녀 서사에서 보편적인 가족 서사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가족 안에는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양상의 다양한 갈등이

17) 앞의 책, 258면.

18) 앞의 책.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가족을 중요시하는 유교문화권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결국 작가는 치매를 가족 중심의 한국 문화 안에서만 서술하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치매의 문제는 대부분 심리적인 면에 국한될 뿐 경제나 사회면으로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작품 안에서 영주와 어머니의 이야기는 딸 영주의 시점에 매우 가까운 3인칭 선택적 전지시점에서, 마금의 이야기는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그런 시점은 1인칭 서술자의 시점에 비해 객관적이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인물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1인칭 서술자의 눈을 벗어난 치매 환자의 행동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주가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포교원에 관한 정보를—그곳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곳에 사는 이는 누구이며, 영주 어머니는 어떻게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가. 등을— 무리 없이 서술할 수 있다. 서술자의 눈을 통해서 관찰된 치매 환자의 행동은 작품 속에서 단순히 다른 이야기를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치매 환자를 이해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치매 환자를 두고 겪는 주변인들의 갈등은 실제로 치매 환자를 이해하지도, 치매 환자가 원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 데서 오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텍스트가 1인칭 서술자 시점에 비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관찰자 영주가 어떤 인물인가-사색적인가, 철학적인가, 허무맹랑한가, 무관심한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작가가 이런 시점을 택함으로써 얻는 효과도 분명하다. 치매 환자를 바라보는 보호자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각의 나비」에서 치매 당사자는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지 알 수 없다. 주변 사람들은 어머니의 생각을 잘못 읽고,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어머니를 이끈다. 그러나 치매 당사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찾아 매번 집을 나간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 딸들과 함께 정겹게 살았던 과거의 삶의 공간”¹⁹⁾에서 현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모든

19) 김수이, 「박완서의 소설을 읽는 고통스러운 행복」, 『환각의 나비』, 269면.

짐을 내려놓은 채 평화로운 삶을 찾는다. 저자는 이 텍스트를 통해 치매로 인해 현재의 정체성을 망각함으로써 진정한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는 인생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 주면서,²⁰⁾ 기억이라는 것이 때로는 삶의 잔재로서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는 치매의 문제를 단순한 소재가 아닌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작가가 보호자 혹은 가족들이 치매 환자와의 제대로 된 의사소통과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한편, 자식들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짐을 벗어내는 영주의 어머니를 제시한 것은 한국적 부모 자식의 관계에 새롭고 긍정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에도 치매를 가족 중심의 서사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룬 소설에서 아버지나 아들이 중심이 되는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가족관계 안에서 질서를 찾아가도록 강요받았던, 일반적인 한국적 정서에서 작가가 자유로울 수만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어머니가 마금과 함께 기거하면서 가끔씩 먼 산을 바라보며 “우리 아들이 곧 데리러 온데는데 왜 이렇게 안 오나?”²¹⁾하는 부분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치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망각으로부터 가끔씩 정신이 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치매 당사자의 원래의 혹은 또 다른 의식으로 작가는 어머니의 기억에 딸이 아닌 아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보편적인 정서가 아들 중심의 가족으로의 회귀라는 것을 은연중에 짐작하게 한다.

아들 중심의 가족으로의 회귀는 이 텍스트의 마지막 장면에서 말하고 있는, 현실의 망각 상태에서만 가능한 자유로움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진정으로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옛집이 아니라, 그 집에서 그때처럼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나 기억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예전처럼, 행복하게 함께, 사는 ‘실존의 장소’인 것이다. 그런데 어머

20) 김은정,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의 의미」, 앞의 책, 324-325면 참조.

21) 박완서, 「환각의 나비」, 앞의 책, 253면.

니가 처한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실존의 장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아들과 살았지만 예전처럼 행복하지 않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집에 왔지만, 그때처럼 같이 살 아들이 없는 것이다.

한편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치매 환자가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보호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치매로 인해 뇌기능의 쇠퇴와 더불어 신체의 여러 기능도 잃어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보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어느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는 제대로 된 보호가 불가능한 동시에 그 보호자 역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환각의 나비」에서도 그런 보호자들의 희생이나 그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보여 주고 있는데, 보호자들이 전적으로 그에 매달려 있지 않은 이상 속수무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일견 보호자들의 책임처럼 보이고 치매 당사자의 거취가 여전히 마음과 함께 이룬 가족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치매의 문제가 단순한 가족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고,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복지 지원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당시의 한국적 상황을 읽을 수 있게 한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환각의 나비」가 발표된 1996년과 달리 많은 것이 다르다. 이전에 가정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던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뛰어들면서 더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릴 수 없게 되었고, 급증하는 노인 인구의 변화에 따라 노인들의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미리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인식이 변화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해 노인복지를 확대하면서 이에 따라 요양 병원도 많이 설립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4. 엘리스 먼로의 「곰이 산을 넘어오다」

영화 <Away from Her>²²⁾로 만들어져 유명하기도 한 엘리스 먼로의 원작소설 「곰이 산을 넘어오다」는 1999년 12월 27일에 The New Yorker에

처음 발표되었다.²³⁾ 치매에 관한 서술인 동시에 치매를 통해 드러나거나 형성되는 관계성에 관한 서술 작품으로 비교적 긴 중편인 이 텍스트는 그랜트와 피오나 부부, 피오나와 오브리, 그리고 오브리의 아내 메어리언과 그랜트의 이야기가 축을 이룬다. 이 텍스트에서는 「환각의 나비」에서와 달리 치매를 노년의 증상이 아닌 질병으로 다루고 있다.

4.1. 결정의 주체자로서의 치매 환자

「꿈이 산을 넘어오다」에서 가장 중요한 서사는 대학교수였던 그랜트와 치매에 걸린 아내 피오나의 이야기이다. 치매를 인정하고 요양원을 선택한 치매 당사자인 피오나와 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보호자 그랜트의 이야기를 통해 치매를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구문화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텍스트는 피오나와 그랜트가 피오나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살고 있는 집에 대한 회상에 이어 요양원으로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피오나가 그랜

22) 2006년에는 사라 폴리(Sarah Polly)에 의해 <Away from her>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만들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치매를 다룬 소설이 영화화된 경우, 소설의 독자보다 영화 관객이 더 많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영화와 소설의 매체적 특성 때문일 것이다. 서술자 혹은 이야기꾼이 등장하는 소설에서는— 가끔 치매 당사자 자신이 서술자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치매 환자의 생각, 행동 등은 대체로 다른 인물에 의해서 전달되고 있어서 독자들은 그것을 다시 해석하거나 분석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반면 영화의 경우에는 치매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관객은 독서를 할 때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way from Her> 역시 소설에서 읽을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을 생략하고 피오나의 치매에만 집중하고 있다.

23) C. Sustana, “Analysis of ‘The Bear Came Over the Mountain’ by Alice Munro”, 2016, August 22, <http://shortstories.about.com/od/Contemporary_Stories/_/Analysis-of-IsquoThe-Bear-Came-over-the-Mountainrsquo-by-Alice-Munro.htm>, 2016. 09. 22. 참조. 이 잡지는 온라인을 통해 독자들이 전문을 무료로 읽을 수 있게 했다.

트에게 어떻게 칭혼을 했는지에 대한 회상은 그녀가 얼마나 충동적이면서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를 은유적으로 보여 준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테이블에 컵 바닥 모양의 음료수 자국들이 남아 있다고 말하는 두 번째 문장과 집을 나서기 전에 싸구려 검정 실내화 때문에 부엌 바닥에 난 작은 얼룩을 문지르면서 “이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²⁴⁾라고 말하면서 당혹스러워하는 피오나의 반응이다. 요양원으로 떠나면서 작은 얼룩에 신경 쓰는 피오나의 행동은 앞서 서술된 생동감 넘치고 충동적이기까지 한 피오나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 얼룩들이 의미하는 바는 텍스트가 진행되면서 독자들이 점차 이해하게 되는 내용인데, 바로 피오나가 지우고 싶은, 거의 50년의 결혼생활을 한 지금은 괜찮아졌어야 할, 그랜트가 만들어낸 것들이다.

흥미로운 점은 피오나가 점차 기억을 잃어가는 데에 반해 그랜트는 그녀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얼룩진 과거를 곳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텍스트는 치매 환자 못지않게 보호자 입장의 서사를 수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환각의 나비」에서보다 훨씬 확장된 담론을 이끌어 낸다. 30일 동안의 방문 금지 후에 그랜트가 피오나를 방문했을 때, 피오나는 이미 그를 잊은 상태이다. 게다가 끊임없이 피오나를 속이고 외도를 했던 그랜트는 오브리라는 요양원 거주자와 사랑에 빠진 피오나를 봐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고, 불성실했던 자신의 과거를 꿈에서도 마주하게 된다. 요양원에서의 시간이 지나면서 피오나가 점점 오브리를 남편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랜트는 문득문득 피오나가 기억을 잃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망각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가끔씩, 놀라워요.”

크리스티가 날카롭게 되물었다. “뭐가요?”

“그녀가 가면을 쓰는 건 아닐까 하고요.”²⁵⁾

24) A. Munro, “The bear came over the mountain”. *Hateship, Friendship, Courtship, Loveship, Marriage*. New York: Vintage Books, 2001, 276면. “I thought they’s quit doing that,”

25) 앞의 책, 294면. “Well, I sometimes wonder—” he said. / Kristy said sharply,

이런 의문은 피오나가 갑자기 오브리를 잊어버리고 그랜트를 기억하는 결말에서도 가질 수 있는데,

“당신이 와서 기뻐요.” 그녀가 말하고는 그의 콧볼을 잡아당겼다.

“당신이 그냥 가버린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 따윈 신경 쓰지 않고 버려두고 간 줄 알았죠. 나를 버리고, 저버리고.”

그랜트는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 분홍빛 속살, 사랑스러운 머리에 얼굴을 기댔다. 그가 말했다. 불가능해.²⁶⁾

작가는 치매 환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는 서술자의 ‘3인칭 선택적 전지 시점’²⁷⁾을 사용하고 있어서 두 개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우선 「환각의 나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치매 환자의 기억 혹은 망각은 완전한 것이 아니어서 순간순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랜트가 생각하는 대로 피오나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랜트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먼로가 그 이상은 독자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피오나의 행동에 따른 진실여부는 전적으로 독자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서사는 치매라는 질병의 증세가 불분명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독자에게 인식시키는 몫을 하고 있다.

한편, 이 텍스트에서는 치매 환자를 절망의 상태에 가두어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자기의 영역을 확대시키게 함으로써 절망의 상태에서 긍정적인 노년의 삶으로 이끈다. 또한 이들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

“You wonder what?” / “I wonder whether she isn’t putting on some kind of a charade.”

26) 앞의 책, 323면. “I am happy to see you,” she said, and pulled his earlobes. / “You could have just driven away,” she said, “Just driven away without a care in the world and forsook me. Forsoothen me. Forsaken.” / He kept his face against her white hair, her pink scalp, her sweetly shaped skull. He said, Not a chance.

27)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론』, 한국학술정보(주), 2010, 175면. ‘3인칭 선택적 전지 시점’은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한 인물의 마음속에만 들어가는 시점”이다.

록 보호자들이 합의를 하게 되는데, 치매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 노년의 사랑 그리고 행복에 관한 보호자의 노력과 선택은 독자의 지평의 확장시킨다. 그랜트를 잊은 채 오브리와 사랑에 빠진 피오나는 그랜트에게 오브리를 유년에 만난 친구라고 소개를 한다. 요양원에서 만난 노인들이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사랑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의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던 이전의 가치관으로 보면 낯선 장면으로, 먼로는 이 텍스트를 통해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년의 치매환자들에게도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에 빠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피오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오브리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피오나는 상심에 빠진다. 피오나와 오브리의 관계로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랜트는 결국 오브리를 다시 요양원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한다. 피오나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피오나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러자면 피오나가 사랑하는 오브리가 그 옆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랜트는 집으로 돌아간 오브리를 다시 요양원으로 데리고 가 피오나의 옆에 두기 위해서 그의 아내인 메어리언을 만나러 가는데, 주의해서 살펴볼 점은 먼로가 메어리언과 그랜트의 대화를 통해서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위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넌지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브리가 요양원에서 계속 사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는 그랜트의 질문에 메어리언은 그를 계속 집에서 돌볼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가진 것은 집뿐이며, 다음 해부터는 두 사람의 연금이 나오지만 오브리를 요양원에 보내게 되면 집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랜트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로 거절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경제적인 문제로 오브리를 집에서 보호하겠다고 하는 메어리언의 입장은 박완서의 텍스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치매 환자를 가족이 집에서 보살피는 한국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먼로는 놀랍게도 그랜트가 오브리를 다시 요양원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패로 그랜트 자신을 투입시킨다. 메어리언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랜트가 집에 오자 토요일 저녁 싱글들을 위한 댄스파티에 자신이 공짜로 손님을 한

명 초대할 수 있다는 메어리언으로부터의 전화가 기다리고 있다. 그랜트는 피오나를 위해서 아이러니한 -아마도 메어리언과 외도를 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오브리를 요양원에 데리고 간다. 그런데, 그랜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브리를 잊고 그랜트를 기억하는 피오나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서사는 치매라는 질병의 예측 불가능한 증세가 때때로 상대방을 얼마나 당황스럽게 만들고,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지를 알게 한다.

4.2. 사회적 문제로 바라본 치매

「꿈이 산을 넘어오다」라는 작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제목이다. 이 제목은 “꿈이 산을 넘어가다 The Bear went over the mountain”라는 북미권의 전래동요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노래의 가사는 특정 부분들이 조금씩 변형되어 여러 형태로 존재하지만 주요 내용은 같다: 꿈이 산을 오르네, 산에 올라 꿈이 본 것은 그 산의 반대편이라네.”²⁸⁾ (Sustana, 2016)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 동요를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의 입장에서 먼로의 텍스트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될 것이다. 1)이 텍스트에서 꿈은 누구일까?, 2)‘올라가다 goes over’와 ‘넘어오다 came over’는 무슨 의미일까?

언뜻 생각하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랜트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산을 오르는 동안 -피오나와의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피오나 몰래 수없이 많은 외도를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온 불성실한 사람이었지만, 피오나의 부재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편의 길을 따라오고 있다. 그런데 치매로 인해 메도레이크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떠나는 피오나 역시 다른 쪽으로 넘

28) 서스테이너, 앞의 자료. There are variations of the specific lyrics, but the gist of the song is always the same: the bear goes over the mountain, and what he sees when he gets there is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어오는 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꿈은 그랜트나 피오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여도 가능하고, 산을 넘는 행위는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다. 봉우리는 인생의 절정으로 볼 수 있는데, 그곳까지 가는 동안이 건강과 젊음으로 활기가 넘치는 시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인간은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면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른다는 것이 치매의 중심서사일 것이다.

「꿈이 산을 넘어오다」는 서술 시점, 담론 그리고 서술의 층위가 「환각의 나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환각의 나비」에서는 영주와 어머니의 이야기가 마금의 이야기와 하나로 만나고 있다면, 이 작품은 좀 더 복합적인 층을 이루고 있다. 그랜트의 시점에 가까운 3인칭 선택적 전지 시점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 이 텍스트에서 그랜트와 피오나 부부의 이야기, 요양원에서 피오나와 오브리의 이야기, 그리고 그랜트와 메어리언의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각각 다르다. 치매 환자를 통해 본 기억의 망각, 그로 인해 보호자가 마주하게 되는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기억들, 치매라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노인들의 사랑, 보호자의 역할, 치매 환자의 인격에 대한 보편적인 배려, 치매 환자의 가족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기억과 망각의 모호함 등 생각할 거리들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한편 먼로는 텍스트 이곳저곳에 깔아놓은 대화를 통해서 피오나의 기억 또는 말이 진실일까를 묻고 있다. 그랜트는 피오나가 “이 이는 오브리예요. (…) 재미있는 것은 옛날부터 알던 사이라는 거지요. 그는 제 할아버지가 다니던 정비소에서 일을 했거든요.”²⁹⁾라고 오브리를 소개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그냥 지나칠 만한 이 이야기에 대해 그랜트는 메어리언을 설득하러 갔다가 나오면서 혹시 남편이 확장시절에 여름 동안 정비소에서 일을 했는지를 물어본다. 그러자 그녀는 “전혀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어요. 난 여기서 자라지 않았어요.”³⁰⁾라고 대답한다. 메어리언의 대답은 피

29) 엘리스 먼로, 앞의 책, 290면. “Its just Aubrey,” she said. “The funny thing is I knew him years and years ago. He worked in the store. The hardware store where my grandpa used to shop.(…)”

오나에 대한 의문을 상기시킨다. 피오나가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꾸며낸 것일까, 아니면 이것도 치매 증세의 하나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이 부분 역시 그 만큼 불분명하고 모호한, 치매의 한 특성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5. 나오며

이 논문은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와 앨리스 먼로의 「곰이 산을 넘어오다」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공간에서 동시대의 작가가 소설에 어떻게 치매를 수용하고 있는가를 짚어 보았다.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에서는 치매에 걸린 영주의 어머니와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마금에 관한 이야기가 따로 진행되다가 하나로 만나는데, 영주와 어머니의 이야기는 영주의 시점에 가까운 3인칭 선택적 전지 시점에서, 마금의 이야기는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 텍스트에서 치매는 다른 이야기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서술의 대상인데, 특히 치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망각을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가벼움과 자유로움으로 다루고 있다. 박완서는 가족의 정서와 심리적인 관점에서 치매 환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것은 가족 중심의, 정서에 민감한 보편적인 한국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이 텍스트에서 치매를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노화로 받아들이던 정서, 치매 환자를 가족의 보호 아래 두고 보살피야 한다는 가족 의존 방식 그리고, 치매 환자의 거취나 의견이 보호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보호자 중심의 서사를 보여 주면서 치매 환자의 행복과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편 앨리스 먼로는 「곰이 산을 넘어오다」에서 정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치매 환자는 물론 치매라는 질병을 이해하고자 한다. 「환각의 나비」가

30) 앞의 책, 317면, “I never heard about it,” she said. “I wasn’t raised here.”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가족 안에 머무는 이야기라면 이 텍스트는 치매에 관한 서술인 동시에 치매를 통해 드러나거나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성에 관한 작품으로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정서에 익숙한 한국 사회와는 대척점에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된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먼로의 작품은 여러 축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다채로운 면을 보여 준다. 중심축을 이루는 그랜트와 피오나 부부의 관계는 치매에 걸린 피오나가 그랜트를 잊고 요양원에서 만난 오브리와 사랑에 빠지면서 외도를 일삼던 그랜트의 삶에 반전을 가져오고, 피오나와 오브리의 노년 치매 환자의 사랑은 노년의 성과 사랑도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랜트와 오브리의 아내 메어리언의 이야기는 오브리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어쩌면 집을 처분해야 할지도 모를 메어리언과 같은 부류의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사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피오나와 오브리의 사랑을 지속시키기 위한 이들의 합의는 보호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처럼 먼로의 텍스트에서는 치매 환자의 행복에 대한 보호자의 대응, 보호자의 역할, 경제적으로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보호자들에 대한 보호 등을 읽을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동시대 작가의 작품인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와 앨리스 먼로의 「꿈이 산을 넘어오다」에서 치매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해 봄으로써 그 당시의 한국과 캐나다가 치매에 대해 얼마나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문학 서사적인 측면에서의 치매에 대한 연구는 병리학적인 개념을 문학에 끌어들이는 점에서 문학연구와 창작 등 문학 일반에 유용하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전개할 수 있는 치매의 수용이 작가가 노리는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은 다른 작가들의 문학적 상상력을 고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문학에서의 치매에 대한 수용은 더욱 변화된 담론을 이룰 것이며, 나아가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적극적인 방식으로 소설이 현실적인 상상을 넘어서는 담론을 채택함으로써 독자들의 현실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박완서, 「환각의 나비」, 『환각의 나비』, 푸르메, 2006, 217-258면.
Munro, Alice, “The bear came over the mountain”. Hateship, Friendship, Courtship, Loveship, Marriage. New York: Vintage Books, 2001, 275-323면.

2. 단행본 및 논문

- 김수이, 「박완서의 소설을 읽는 고통스러운 행복」, 『환각의 나비』, 푸르메, 2006, 259-271면.
김은정, 「모녀 서사를 통해 본 ‘치매’의 상징성 연구」, 『韓國文學論叢』 61, 한국문학회, 2012, 303-327면.
김은정, 「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의 의미」, 『韓民族語文學』 63, 한민족어문학회, 2013, 313-340면.
김은정,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의 의미」, 『韓國文學論叢』 70, 한국문학회, 2015, 293-332면.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론』,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0.
이강수, 정해관, 오병훈, 홍창형,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인지선별 검사 4종의 타당도 비교」, 『신경정신의학』 48(2), 2009, 61-69면.
이동영, 이강욱, 이정희, 김기웅, 주진형, 윤종철 등, 「Mini-Mental State Examination의 한국 노인 정상규준 연구」, 『신경정신의학』 41(3), 508-525면.
최명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년의식 연구 - 양원식의 노년소설과 대비하여」, 『국제한인문학연구』 5, 국제한인문학회, 2008, 219-242면.
D. 썩크, 이진수 역, 『망각: 알츠하이머병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3.
W. R. 켈클 & D. 아멘, 신정호 역, 『알츠하이머 치매의 예방과 치료』,

고려의학, 2005.

U. 에코, 김운찬 역, 『움베르토 에코의 문학 강의』, 열린책들, 2005.

J. K. 코스테, 홍선영 역, 『알츠하이머병 : 가족에게 다가가기』, 부·키, 2014.

Campbell, Robert Jean, Psychiatric Dictionary. 5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158-159면.

3. 기타

C. Sustana, “Analysis of ‘The Bear Came Over the Mountain’ by Alice Munro”, 2016, August 22, <http://shortstories.about.com/od/Contemporary_Stories/fl/Analysis-of-IsquoThe-Bear-Came-over-the-Mountainrsquo-by-Alice-Munro.htm>, 2016. 09. 22. 자료 없음.

【Abstracts】

Acceptance of Dementia Narrative in Novels

Kim Mi-young

Dementia is a disease that comes about without notice, so a person with dementia as well as his or her surrounding people come to face psychological, physical, and economic problems. This paper analyses how dementia is accepted in novels and focuses on what this kind of study means in the area of literary criticism or literary history. The texts used for the analysis are Wonseo Park's "The Butterfly of Hallucination," and Alice Munro's "The Bear Came Over the Mountain," in which the subject matter or the motive was narrated through a person with dementia. The research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these texts is considered to widen the area of criticism for the discourse about other texts. These stories offer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what 'memory,' and 'the role of memory' is, for worrying about the universal problem in the character of a person with dementia and his or her families' identity under the unpredicted condition and for pondering over the happiness and the perpetuity of life.

Key words : Alice Munro, Wonseo Park, acceptance in literature, dementia, memory and forgetting.

이 논문은 2016년 10월 17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11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11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

